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인 예술가, 비장애인 예술 단체의 높은 관심 속에 총 431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들의 면밀한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총 6개 사업유형에서 136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 지원 금액은 26억 3천만 원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창작 활성화 지원' 56건, '문화예술 향수 지원' 45건, '배리어프리 제작 지원' 1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11건,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3건, '국제교류활동 지원' 20건으로 총 136건이다.

심의위원들은 사업계획 및 수행방법, 실현가능성, 사업수행역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예술 장르별 수월성, 작품의 완성도,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였다.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예술가(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기획한 단체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를 통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연구추이를 살펴보면 90년대에는 장애인을 문화복지(향유) 증진의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그것의 증진방안의 연구가 시행되었다가 2007년이 되어서야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이 연구되기 시작하여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2010),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2014)가 추진되고,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가 연구되었다. 늦지 않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장애인의 문화 향수를 넘어 창작 등의 다양한 문화복지의 실현을 위해 빠른 속도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미 장애의 문제를 차별이 아닌 차이, 다름으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및 교육 등에서 발견되는 열악한 환경과, 심지어 여전히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인식을 발견하였다. 보편적 문화복지와 '함께 살기'를 위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은 여러 모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복지, 문화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창작 활성화 지원]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예술 창작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문화에 젖줄을 댄 예술 활동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은 심의위원들 모두 주지하는 바이고,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바로미터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2018년 심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장애인에 의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로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한 팀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이 본 사업의 앞날을 고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까지도 "무늬만 장애인" 형식의 기획 상품 같은 트릭과 안이한 접근,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다루려는 민도 낮은 시도 그리고 무엇보다 두세 단체로 분화하여 이번 사업의 정체성을 시험하려는 시도 등이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었다. 이러한 난맥상과 고무적인 전망이 엮히고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정밀하게 판단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다행히 심의위원들 각자의 경험과 해안 그리고 합리적인 추론을 오랜 시간 거쳐서 목적인바 소기의 결과를 얻어냈다.

문학의 경우, 작품 창작의 이력, 창작 작품의 완성도, 출간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실행 계획, 작품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시각예술의 경우, 기획력과 작업의 수월성,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가급적 지원금의 수혜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회화를 중심으로 사진,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업이 신청되었고 대부분 훌륭한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동시대의 예술 흐름이 기민하게 반응된 작업을 찾기 힘들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추후 지원사업 외에 지원예산이 증액되어 예술가들이 창작의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국내외의 동시대 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여 현장을 독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음악, 전통예술의 경우, 우수한 작품성과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지역과 장르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공연의 주체가 장애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음악과 공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현실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원예술, 무용, 연극, 예술일반의 경우, 장애인의 신체와 문화 그리고 존재론적 특징을 포착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를 진행하는 단체가 있어서 창작 활성화 사업의 초점을 이룬 것이다. 초점 없이 지원사업의 예산을 허비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로 풀이할 수 있다. 모쪼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난 20세기까지 유지해온 신체적 담론의 편견을 벗고 신체와 현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는, 따라서 장애인들에게도 신체의 정신적 자유와 문화향유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 피력이 실제로 이루어진 심의결과이기를 바라면서 선정된 팀들이 우수한 결과물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문화예술 향수 지원]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인권과 문화 복지에 기초한 핵심 사업이며 이는 심의위원 공히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한국적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문화적 기반의 예술 감상이라든가 그에 따른 고양된 문화 향유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이 비장애인 위주로 일종의 변별적 구도를 갖고 있음을 비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을 허물면서도 장애인의 유니크한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번 사업은 장애인이 예술 창작과 보급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장애의 조건을 극복하는 단체들이 다수였으며 동시에 장애인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혹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향수를 접근하는 단체가 그 외곽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문화적 역량을 갖춘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심의 과정을 전개했으며 그러면서도 장애인의 문화향수라는 가치를 열어놓고 비장애인의 문화예술향수의 수준 높은 시도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로 살펴봤다.

문학의 경우, 문화예술 향수 사업의 취지, 사업계획의 짜임새,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시각예술의 경우, 기 공고된 바와 같이 큰 틀에서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폈으며, 활동 실적과 기획안을 기초로 장애인 예술단체의 창작 활성화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신청 사업은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신청서에서 활동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으나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력과 사업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지원을 결정했다. 예산이 부족하여 모든 사업

을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하며 덧붙여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 보다 충실히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음악, 전통예술의 경우, 장애인의 참여와 활동의 폭이 넓은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고민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비장애인 예술단체가 단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순회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등 장애인 향수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적은 단체는 후순위로 고려하였다. 동호회의 경우 순수한 목적으로 장애인들이 중심으로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유지하고 자생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사업,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계획이 충실한 사업을 우선 고려하였고 지역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다원예술, 무용, 연극, 예술일반의 경우, 기존의 장애인 타이틀을 걸고 지원을 많이 받는 단체들과 그 외 개인 내지는 소수자들로 구성되어 문화예술 향수의 주체적 시도를 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를 거듭했으며 그 사이의 역동적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사전배제하지 않고 그 문화적 역량을 살펴서 보다 진전된 장에서 논의를 펼치려는 것이다. 좌우간 역동적 균형이란 표현은 심의위원들 사이의 갑론을박과 함께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일정하게 안점에 해당하는 수렴처를 찾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취지하에 진행된 심의 결과는 비교적 문화예술향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새로운 가교를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고 본 심의위원들은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이 실제로 현실화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이러한 심의의 공정성과 여러 안배 및 배려가 조화를 이루기 희망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변별을 없애는 통합적인 문화예술 향수가 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기를 소망한다.

[배리어프리 제작 지원]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배리어프리로 제작하고자 기획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배리어프리 제작 지원 유형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양질의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허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배리어프리 제작이 사업의 주된 요소가 아닌 극의 창작 및 제작 사업 등 본 사업 유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 사업, 극의 시놉시스에서 장애인만의 유니크한 예술성이 발현된다고 보기에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사업 등의 신청이 있어 아쉬움을 피력하는 바이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의에서는 장애를 대상화하지 않고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창작가 육성 및 다양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지원한 총 90건 중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면심사 대상은 19건이었다. 서류심사 시 장르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도 사업을 통한 질적 성장을 위하여 일회적 지원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19건의 대면심사에서는 각 지원사업의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이에 따라 총 11건의 사업에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본질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의 창작 및 향유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또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는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였는지 등을 세밀하게 심의하였다.

서류 및 대면 심사를 통해 기대되는 사업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원사업의 목적과 이에 따른 내용과 기대효과 등등이 형식적이며 단순한 수혜적 시각에서 지원된 사업이 많았기에 보다 양질의 계획이 수반된 지원이 양적으로도 늘어나야 한다. 이는 당 지원사업에 국한된 실정이 아닐 것이다. 여전히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교육 전반의 환경의 열악함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된 지 몇 년 채 지나지 않았으며 이제야 그 토대가 구축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보다 질적인 성장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다양한 활동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마련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의 이해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장르별로 민간단체부터 지역문화재단까지 다양한 지원 단체들의 신청이 있었으며 본 사업 유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청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계획, 운영 방법, 운영 인력의 안정성, 다년간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 지역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지역 단체들의 지원보다 서울 지역의 신청률이 높아 향후 지역 소재 단체들의 지원이 독려되었으면 한다.

[국제교류활동 지원]

본 사업을 선정하는 심의에서는 단체 및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사업의 수행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준비성과 교류하고자 하는 상대국가와의 밀접함 등도 심의의 대상으로 고려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개인 및 단체들이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적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가의 장애인 예술성과 복지적 차원도 함께 고려하여 의미 있는 행사들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장애인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선정단체들의 노력과 열의를 기대한다.

앞으로 신규 장애인 예술 단체 및 예술가들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회 및 지원 등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덧붙이는 바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심의위원 일동